

## 홍석준 공천보류... 차 최측근 유명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명하 변호사 출마 영향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달서갑 공천이 보류된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명하 변호사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여권이 박 전 대통령을 고려해 유 변호사를 공천키로 몰릴 약속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선 “절대 그럴 리 없다”며 꺾어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조차 컷오프 당할 만큼 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홍 의원은 19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갑 공천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유명하 변호사 출마 영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유명하 변호사만 아니면 제가 경선에서 빠질 이유가 없는데 공관위가 이런 복잡한 것들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한테 여러 화해 제스처를 취해 왔다. 관저로 오찬 초대도 했고 최근에 박 전 대통령 72번째 생일에는 직접 축하 전화도 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명하 변호사 공천이 몰림에서 약속됐을 가능성은 없느냐”고 하자 홍 의원은 “없다”며 단언했다.

그 이유로 “이번에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심 공천은 없다’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 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는가”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40년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도 서울 송파갑에서 컷오프됐다. 따라서 몰림 약속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만약 유 변호사와 경선에서 불을 경우 박 전 대통령 영향력이 미칠지 여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부 남아 작동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명하 변호사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충분히 경선에서 이길 자신 있다”며 그동안 지역구 관리를 잘해 왔음을 강조했다. **조미경 기자**



육군3사관학교, 61기 사관생도 369명 입학식

육군3사관학교는 19일 제61기 사관생도 369명의 입학식을 가졌다.

충성연병장에서 열린 행사에 가족과 친지, 동문, 교직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여생도 64명을 포함한 이번 신입생들은 지난 1월 15일부터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을 받았다. 생도 중 6명은 병역이행 명문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가 군 간부로 복무하게 돼 눈길을 끌었다. 선배인 아버지(31기), 누나(58기)와 함께 정예장교의 길을 가는 생도, 세 번째 군 생활을 시작한 12명, 자격증을 7~13개씩 보유한 10명, 해외 유학파 5명도 화제가 됐다. <사진=영천시 제공>

## 달성군 귀농 청년 3년 새 83% 증가...

가공법인 소속조합원  
가공제품까지 판매해



달성군에 정착한 농업인 우성원 씨(33)는 한국외국어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베트남으로 가 요식업을 창업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해야만 했다. ‘창업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우 씨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사업에 참여했다.

달성군에서 태어나 10대 학창시절을 보낸 뒤 서울로 상경했던 그는 2022년 달성군 유가읍에 600평(1984㎡) 규모의 밭을 마련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살려 바나나, 파파야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려 했지만 자금이 넉넉지 않아 딸기 농사로 결정했다.

우 씨는 “병해충이 생긴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작물을 망칠 수 있는데, 멘토가 한 눈에 병해충을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알려줬다”며 “배우면서 알게 된 지식을 농사일을 시작하는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우 씨는 달성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농산물가공 창업 지원 및 식품가공 전문

가공성을 위한 ‘농산물가공 창업아카데미’를 수료했다.

달성농업기술센터는 수료자가 직접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곳이다.

가공법인 소속 조합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공제품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우 씨는 “달성군이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도움과 노력으로 현재 연간 6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려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달성군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이 11명으로 6명이던 2020년과 비교하면 3년 새 83.3% 늘었다.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조여은 기자**

## 홍준표, “TK신공항 SPC 구성에 사활 걸어라”

올 상반기 대구시정  
가장 핵심적 과제는  
TK신공항 SPC 구성

홍준표 대구시장이 “TK신공항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에 사활 걸어라”라는 특명을 내렸다.

홍 시장은 19일 시정 산정경사대회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올 상반기 대구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TK신공항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지난 1년간 실적이 미비했지만, 모든 부서에서 힘을 한데 모아 상반기 내 SPC 구성이 완료되도록 사활을 걸어라”고 말했다.

도시주택국의 ‘2024년 공공건설사업 70% 이상 상반기 조기발주’ 보고를 받은 후 “최근 고금리, 자재가 상승 등 지역 민간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70% 목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상 절차가 필요 없는 모든 사업은 3월 내로 조기발주하고, 상반기 내 나머지 사업 발주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국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보고에는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의료수가, 단계적 증원, 지방의료 질 향상 등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때문에 “비상진료대책도 철저히 수립하는 동시에,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대구마라톤대회 준비사항’ 보고에는 “올해 열리는 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상금에 걸맞게 초청 선수 섭외에 만전을 기울여 세계의 톱클래스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대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환경수자원국의 ‘정월대보름 대비 산불방지 대응강화’와 관련, “논두렁 태우기, 야간 촛불기도 무속행위 등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관습 및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경제국의 ‘2024년 서문·칠성 야시장 운영’ 보고에는 “서문 야시장의 버스킹 장소에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서문시장과 협의하라”며 “칠성 야시장은 신천재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조여은 기자**



세계최고 신비의 성 물영수새를 만나는 오명관광여행사



단체장 일정 | 임중식 경북교육감은 20일 14시 경북도청 동관관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에 참석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2월 20일 오후 3시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한판쓸자**  
2월 26일(월)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024 제10회 대구광역시보배 전국아마골프대회  
D-6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ICT 선도도시  
**MY UNIVERSE GYEONGSAN**

경북은 지난해 1분기 58%(838건 중 489건)에서 4분기 54.2%(813건 중 441건)로 3.8%p 감소하기는 했지만 ‘강통전세’ 거래 비중이 여전히 절반을 넘었다. 전북(57.3%), 충북(55.3%)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간의 거래가격 격차는 지난해 1분기 1억1433만 원(3억4453만 원~2억4310만 원)에서 3분기 1억2673만 원(3억6550만 원~2억3877만 원)으로 확대됐다. **조여은 기자**

#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2



## 삼은건설 김하봉 대표 500만원 기부

올해도 출향인들의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이 높아 군위군 고향사랑 고액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재대구군위군향우회 김하봉 대표는 500만원을 기탁하며 군위군 고향사랑기

부제에 동참했다. 김하봉 대표는 군위군 소보면 출신으로 삼은건설(대구 달성군)을 운영하고 있다. 김하봉 대표는 "항상 고향 군위를 생각하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

사하다. 올해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애너스 클럽 가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출향인들의 기부가 군위군과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나눔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류규하 중구청장이 웃었다... 23년만에 인구 9만명 회복

인구순유입률 전국 1위  
정주 인프라 확충 집중  
2025년 인구 10만 진입

류규하 중구청장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내리막길 인구감소에서 인구 증가증가로 돌아서고 있는 탓이다. 류 청장은 "앞으로도 중구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다양한 정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유입시책들을 적극 추진, 인구 10만명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중구 인구가 10만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4일 중구 인구 9만명을 달성했다. 이 날 오후 6시 중구의 인구는 9만 5명으로, 2001년 이후 23년만이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인구 9만 회복은 큰 의미를 준다. 전반적인 주택재개발·재건축 완공에 따른 신속단지 입주가 큰 요인이다. 중구는 1980년 최대 인구인 21만8964명을 기록했다. 중구 인구는 2023년말 8만9064명으로 전년 대비 8865명이 늘었다.

인구증가 추이를 볼 때 2025년도에는 인구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이동통계결과에 따르면, 중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인구 순유입률 1위(10.6%)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구는 대구의 중심으로서 전성기를 보낸 이래, 원도심 낙후화와 도시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중구청은 인구를 회복하기 위해 원도심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5개의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48곳에 달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노령층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일자리지원 사업 확대와 지역 최대의 비율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무엇보다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위한 반다비체육센터(사업비 356억원, 2025년 12월 준공)와 구립공공도서관(사업비 423억원, 2026년 8월 준공)도 건립을 앞두고 있다. 구청 민원실을 찾은 정순자(여·78·중구)씨는 "중구가 21년만에 인구 9만을 달성했다니 정말 정말 감회가 새롭다. 점점 좋아지는 중구를 보니 가슴이 설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대구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앞장

공공 건설공사 70% 이상  
9321억규모 상반기 조기발주  
지역 하도급률 구군 평가제  
하도급 실태점검 건설인포상

대구시는 올해 발주 예정인 관내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상반기 내에 70% 이상 조기발주한다.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건설공사 발주 저조 등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신속한 조기발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관내 공공건설공사 중 사업비 1억 원 이상

발주물량 2조2814억원의 73%에 해당하는 9321억원(사·구·군 6603억원, 공사·공단·교육청 2718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발주한다. 상반기 발주 대상 주요 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조아·동명 광역도로 2, 3구간 건설공사' 1564억 △중구 발주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303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발주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300억 △교육청 발주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85억 원 등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일 대형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에 이어 사업예산의 조기 배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 환경·교통영향평가, 기술 및 설계VE심의, 토지보상 협의 등의 신속한 실시와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상반기

내 조기발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지역 하도급률 구군 평가제 운영, 반기별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을 한다.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을 제고하고,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포상, 우수 건설업체 및 기관 표창을 통해 지역 건설인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지원한다. 조기발주와 관련해 건설협회 및 시공업체 등과 공유를 통해 지역 인력, 자재·장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역업체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 내 발주 사업에 대한 일괄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건설공사의 조기발주가 전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수성구, 고독사 예방 고립 해소 나선다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중요  
고독사 위험군 발굴 지원 최선

수성구는 이달부터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즐거운 생활 지원단'을 운영한다. '즐거운 생활 지원단(이하 '즐생단')은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원) 사업과 연계해 60세 이상 사회봉사자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분야 경력자가 참여하는 고독사 예방 인적 안전망이다. 전문 직무교육을 이수한 '즐생단' 96명이 지난 13일 수성구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5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배치됐다. 이들은 2023년 장년(60~64세)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 643명의 재분류 조사에 들어간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4151명의 추적조사, 2024년 중년(40~49세)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도움을 보낸다. **조미경 기자**

수성구는 지난해 12월 '함께 행복한 수성마을! 행복만남-고독제로'를 비전으로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구청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위기상황별 서비스 연계 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기반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5개 부서가 28개 세부 계획을 세워 지역사회 내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 나선다. 올해는 1인 가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주력한다.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해선 고립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민간 협력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팔공산 미나리 산지 가격으로  
동구, 22·23일 소비촉진 행사

동구청이 오는 22, 23일 이틀간 동구청 열린마당에서 팔공산미나리 소비촉진행사를 연다.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나리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서다. 동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선 싱싱한 팔공산미나리를 산지 시세로 살 수 있다. 가격은 800g에 1만2000원이다.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500명에게는 2000원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대구 사과, 반야월 연근, 딸기, 연근빵, 미나리 막걸리 등 대구 동구 대표 농·특산물도 만날 수 있다. 팔공산미나리는 해발고지 200m 이상 팔공산 자락의 신선한 바람과 지하 150m 암반수를 이용해 친환경농법으로 깨끗하게 재배되고 있다. 향긋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지는 최곱이 최고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동구는 팔공산 친환경 미나리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등록하고 포장재,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 대구은행, 2024 기업영업 전문인력 공채

신체검사 면접전형  
3월 중순 최종 선발

DGB대구은행은 금융기관을 퇴직한 직원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영업권역 확대 등을 위한 기업영업 전문인력을 19일부터 공개 채용한다. 채용을 통해 금융기관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지역 및 대전, 부울경 지역에 대한 영업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다. 지원 자격은 1금융기관 영업점장(지점장) 경력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장 경력 2년 이상 경

력 중한 가지 요건을 보유하면 된다. 학벌과 성별, 나이 제한 없이 DGB대구은행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을 방문해 대충과 외환, 수신, 신용카드, 퇴직연금 등 기업 아웃바운드 영업 전담을 담당한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급여 이외에 별도 성과 계약에 의해, 영업성과에 연동한 성과급이 지급된다. 오는 29일까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를 통해 개별접수가 진행,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개별 연락으로 합격여부가 전달된다. 향후 신체검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3월 중 최종 선발하게 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 포레상담 연합회 동아리 운영 인기 짱

군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

군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센터 내 교육실에서 포레상담 연합회 동아리를 운영했다. 포레상담 연합회 동아리는 군위 관내 중·고등학교 포레상담자들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전한 포레문화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모임이다. 올 2월 첫 만남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모여 포레상담자들 간 유대감을 형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포레친구들을 위해 어떤 도

움을 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교육으로 배우게 된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고 포레상담자 스스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친구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여자는 "포레 친구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거나도 괜찮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을 통해 저 자신이 더욱 성장하고 친구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어요"라며 말했다. 구혜영 군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포레상담 동아리로 훌륭한 포레상담자들이 많이 양성되고, 이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gy.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시행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8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1부 500원 / 분자는 신문윤리 규범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 상급종합병원 인턴·전공의 '사직서 제출 시작'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의사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오늘 오전부터 전공의들이 각 의국별로 속속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후 5시까지 전공의 전체가 사직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정확한 명수는 현재 파악 중이다"고 19일 밝혔다. 영남대병원에서도 인턴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인턴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오전부터 내기 시작했다"며 "이날 오후 2시 현재 인턴 42명, 레지던트 2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전공의 87명 중 7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은희, 더 좋은 대구 교육 더 좋은 학교 건설...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

2024 학교 업무경감 효율화 계획안 발표

대구교육청이 '2024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주체적 학습자가 돼 배움이 이루어지는 '좋은 교육, 교육 공동체들 간 소통과 배려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설된다. 대구교육청은 올해의 교육정책 목표를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로 정했다. 학교가 본연의 배움과 교육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 강화 및 학교업무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 업무 경감 추진, 학교현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확산, 교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역점을 뒀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지원 중심의 조직 및 체계 정비 △일하는 방식 개선 △디지털기반 업무 효율화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한다.

■ 학교지원 중심의 조직 및 체계 정비

학교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의 1수업 교사제 수업협력교사(강사 및 튜터)와 중·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6개월 이상) 채용 업무를 지원한다. 대학생 인력풀을 통해 교당 2-6명의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이들은 사자가 없는 학교에 도서관 장서를 정리, 17학년 이하 소규모 학교의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교설명회 등 행사와 IB 학교의 IB인증 선포식 등 행사를 보조한다. 학교에만 지원하던 교과서 분류 사업을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학교와 급식실 신축·증축·개축 학교에는 전처리실, 조리실 등 공간 구획과 적절한 급식기구 배치를 컨설팅한다. 모든 학교의 조리실 후드·덕트 청소용역을 센터에서 통합 발주하는 등 현장밀착형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 일하는 방식 개선

학교업무를 초·중등 교무학사, 행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기존의 메뉴얼을 체계적으로 통합·정비한다. 학교업무 통합메뉴얼을 제작, 오는 4월에 학교자료검색시스템을 통해 보급한다.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 성과가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공모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정비,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 자율성도 높인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발송되는 유사한 사업을 발굴, 일괄 안내해 공문서를 감축, 올 하반기에

정책연구를 통해 공문서 감축방안을 마련한다.

■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화

공문서 작성, 처리 업무 지원 지침 및 현장에서 필요한 최신 자료를 모아 놓은 학교자료검색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교육정보 아카이브'(에듀나비 내)에 배너를 신설한다. 대구교육감사정보시스템(다-바른) 운영으로 감사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경감한다. 누적된 감사데이터를 이용, 사전 업무를 점검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계약제교직원 인력풀을 구축, 채용 업무를 지원하는 학교인력풀센터와 4세대나이스 통합·이전을 추진해 학교와 교육청 간 채용서류 관련 공문 처리 절차를 줄인다. 지난해 10월 개통된 방과후학교 감사선정지원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감사

인력풀을 올해에는 더욱 확대한다.

■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다양한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시교육청 내 '학교자율 현장자문단'과 학교지원센터 내 '학교지원과제연구회'를 구성·운영한다. 시교육청 누리집 '참여마당' 내 '업무경감제안'을 통해서도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정책의 피드백을 위해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학교 현장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현장에 적용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가 배움과 교육의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태용 기자

경북도내 전동가위 사고 인명피해 106명

경북소방본부, 전동가위 사고 잇따라 주의 요구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과속 등에 대한 정정 작업 시 전동가위 사용에 의한 인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3년 한해 전동가위 사고 인명피해는 106명이 발생했다. 이 중 83명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23명은 날카로운 절단날에 베이는 경상을 입었다. 지난 13일 포항시 죽장면에서는 60대 여성이 사과나무 전정 작업 중 전동가위 사용 부주의로 손가락 상처를 입어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났다. 시기별로는 2월(18명), 1·10월(각 16명), 12월(12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영천 16명, 의성 10명, 경산 9명, 청송·삼주 각 7명순이다. 김성용 기자

인명피해 중 여성도 32명이나 포함됐다. 최근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전동가위의 보급과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법으로는 전동가위 잡은 손만 앞으로 뻗어 작업,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절단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잡고 작업해야 한다. 할거운 장갑이나 작업복 착용은 피하기, 절단 방지 안전 장갑 착용, 작업 전에는 충분한 휴식 취하기 등이 있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전동가위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순간의 방심이 언제든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동가위 사용 시에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시 즉시 119에 신고 한 후 지혈 등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학생들 안전한 수련활동! 사전 꼼꼼하게...

대구교육해양수련원 2024 사전안전영향평가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은 19일 연휴동안 참여한 고교 교사, 학부모, 대구시교육청 안전영향평가단 등 평가위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안전영향평가를 했다.

사전안전영향평가는 수련활동 시작 전 수련활동 이해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수련시설과 수련프로그램 안전성을 점검하고 의견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내실있는 수련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전안전영향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은 생활실, 야영장, 안전체험관, 모험활동장, 해양활동장, 각 교육실의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과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주요 수련 프로그램인 안전체험관, 해양활동 등 수련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장비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및 안전 확보사항 등을 점검했다. 재난 상황 조치 계획과 비상 대피로 등도 함께 결들였다. 문송태 원장은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 사회적약자 보호 치안역량 집중

대구시민 피해자 소중한 의견 귀 기울여 공감받는 치안정책

대구경찰청이 올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약자 보호에 치안역량을 모은다. 대구경찰청은 19·3월15일까지 대구시민과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설문조사는 경찰청 중심의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해 대구시민과 피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떤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지 확인 후 그에 맞는 치안대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설문조사는 2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대구시민 누구나,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된 △정확한 안전도 △불안 요인 △대구경찰의 대응

△정책 제언 등 16개 문항은 QR코드나 인터넷주소 <https://naver.me/xb7z3Yc2>에 접속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를 입고 112신고 등을 통해 대구경찰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피해자)을 대상으로 담담 경찰의 △업무처리 절차·과정 △응대 태도 △경찰 조치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QR코드나 인터넷주소 <https://naver.me/FqiykXz6>을 통해 실시한다. 경찰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 문제점 등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고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정책 수립에도 적극 반영한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민과 피해자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공감받는 치안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황태용 기자

경북도, 전남도와 농업인 전문교육 교류 첫 시작

두 지역 간 특화작물 위주 이론 현장 교육

경북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작물 재배 확대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지난 19일 농업교육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농업인 교육과정 교류 운영 △교과 콘텐츠 공유 등 농업교육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각도의 비교우위 작물\*을 대상으로 주요 영농시기에 농업인이 해당 지

역을 직접 방문해 이론과 현장 교육을 받도록 진행한다. 경북은 사과 2만46ha(전국 재배면적 대비 59%), 포도 8309ha(56%)이다. 전남은 만감류 929ha(내륙지역의 76%), 무화과 704(97%), 커피 47(50%)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7월 전남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포도 재배 기술 교육을 경북에서 한다. 10월에는 경북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라봉 등 만감류 재배 기술 교육을 전남에서 한다. 도의 경우 평균기온이 지난 45년간 0.63℃ 상승해 아열대기후로 변화되는 양상이고, 농작물 재배 패턴도 변화해 아열대 작물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 내 아열대 작물의 재배면적은 46ha로 2020년 34.7ha에 비해 약 12ha 늘었다. 재배 시군도 18개 시군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만감류의 전문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포도 재배면적은 269ha로 새로 운 재배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북 포도 전문가의 재배 기술 교육과 현장 체험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경북-전남 간 지역 특화 작물에 대한 교류 교육은 새롭고 선진화된 재배 기술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 농업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학교 정보통신 업무 전문성 강화 경북교육청, 담당자 40여명 교육

경북교육청은 경상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정보센터에서 학내전산망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내전산망 업무 전문교육을 했다. 교육은 전문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 최신 기술과 제도의 안내와 교육으로 학내전산망 환경개선 설계공사 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

회는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 기술자와 감리원을 등록·관리하는 전문단체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담당자 전문교육을 한다. 학내전산망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으로 학내전산망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한 학교 정보통신 관련 설계와 공사 지원이 더 전문·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찬 예산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학교 현장의 정보통신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 정기적인 정보통신 담당자 전문교육으로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경주 동궁원, 18기 식물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경주 동궁원이 다양한 식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녹색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식물아카데미(1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식물아카데미는 수요반과 목요반으로 구성되

며, 3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3개월간 주 1회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수·목반 각 25명씩 총 5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식물관련 교육과정으로 이론·실습 및 현장학습을 병행, △생활원에 △야생화관리 △약초와 발효 △식물인문학 △꽃누리미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신청은 새달 4~8일까지 동궁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 경주시, 효현동 일대 공공하수도 정비 60억 투입

오수관로 10.6km 신설, 172가구 수해 상반기 공사 착공, 2025년 12월준공

경주 효현동 일대 수질오염과 정화조 악취 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시는 국비 36억 원을 포함한 총 60억 원 예산을 투입해 효현동 와산, 외의마을, 경주대학교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오수관로 10.6km를 신설, 172가구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한다.

사업대상지 일대는 동지역인데도 공공하수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악취와 정화조 청소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신속한 하수도 확대 보급에 주력한 결과 '2024 환경부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선정, '중요처리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올 상반기 중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한다.

시는 이번 하수관로 정비사업터 외경주대맞은편 원림 등 기존 취락지구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편입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부분변경)이 승인되면 이 사업은 범위 확대와 실공사비 반영에 따라 총 사업비가 140억 원 정도로 대폭 늘어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공공하수관로가 없어 악취를 참으며 생활했던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탐동 상수원으로 유입되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맑은 물로 처리해 형산강으로 다시 내 보내 보다 맑고 깨끗한 친환경 녹색도시 경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이용 적극 동참

시 전체 부서별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소비날로 지정

경주시가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적극 나선다. 시민 경제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올 11월까지 전체 부서별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착한 소비하는 날로 지정, 운영한다.

직원들은 월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점심식사, 회의 등을 활용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서 업체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저렴한 가격, 깔끔한 위생, 품질상태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희망물품 인센

티브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월 최대 30원) △착한가격업소 인증 LED표찰 제작, 방역소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비자들은 국내 9개 신용카드(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를 착한가격 업소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올해도 착한가격 업소를 발굴하고 홍보에도 적극 앞장선다.

현재 경주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2곳, 미용업 4곳, 목욕업 3곳, 세탁업 1곳 등 총 30곳이 지정됐다. 업소현황은 경주시청 누리집(경주소식/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이용에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물가안정과 시민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경주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 17일 지역 청소년 대상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했다.

## 나는야 최고의 요리왕 어떤 음식이든 만들지요

안강청소년문화의집 특기 적성 프로그램 요리경연대회 큰잔치

경주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 17일 지역 청소년 대상 요리경연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북경주 청소년들에게 성취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요리체험실에서 열린 이

번 대회는 특기적성프로그램 요리교실, 제과제빵교실 수강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등 총 8팀이 참가했다.

요리 주제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할 나만의 도시락 만들기로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배경해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맛있는 요리를 선보여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예상보다 더욱 놀라운 실력을 보여줘서 앞으로의 특기적성 요리교실, 제과제빵교실이 더욱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요리실, 악기연습실, 댄스연습실, 상담실, 대회의실, youtube방송실 등 실내시설과 풋살구장, 농구장, 공연장 등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요리, 국공, 드론, 풋살 등 14개 과목의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안강청소년문화의집(760-2590~2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천북면 자생단체협의회, APEC 경주 유치 염원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의미 당위성 지속적 피력

경주시 천북면 자생단체협의회(협의회장 손진열)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총매진하고 있다.

천북면 자생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천북면 자생단체협의회 총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했다. 이날 천북면 자생단체협의회 회원 23명은 회

의에서 각 자생단체별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각 단체 회장들은 단체회원들에게 경주 유치를 응원하는 휴대폰 통화 연결음을 홍보하고 환경정화활동, 기초질서 지키기 계몽운동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적극 홍보하도록 논의했다.

손진열 천북면 자생단체협의회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가 경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천북면 자생단체협의회에서도 천북면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대상자 모집

3월 11일까지 신청·접수 단체 당 500만~1200만원

경주시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4 주민(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오는 26~3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공동체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나눈다.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

는 공동체의 발굴사업이다.

공모분야는 △일반공모(지역재생 및 공동체 기반조성) △기획공모(지역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 △계속사업(지난해 선정 완료된 사업 중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 등 3가지로 나눠 접수된다.

선정된 단체는 대상 사업별 500만~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역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3일 2회에 걸쳐 황촌마을 활력소에서 사전 설명회도 연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최종 경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신청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경주시 양정로 241-1, 7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누리집(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054-760-2538)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오도창 영양 군수는 20일 오후 경북도청 동관 관에서 개최되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20일 오후 경북도청 동관 관에서 열리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에 참석한다.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진로체험 가상융합기술을 만나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겨울방학 진로체험 가상융합기술 XR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진로체험 가상융합기술 XR' 프로그램은 4차산업혁명시대 VR콘텐츠를 활용한 미래 진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미래에 각광받을 직업 관련 역량을 체득하며 준비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윤병문 기자



청도소방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수립 캠페인 추진

청도소방서는 지난 16일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수립하기'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인명피해의 39.1%가 피증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이났을 때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대피경로 환경 등을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파트의 피증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피시설과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조여은 기자

# 오도창 민선8기, 일하는 조직분위기 확산 시동

### 영양미래 청사진 실행역량 '하나로' 일하는 공무원 분위기 확산 본격 시동

영양군은 전국 최대 규모 자작나무 숲의 반딧불이가 서식할 만큼 국내에서 손꼽히는 청정 지역이다. 하지만 2023년 말 기준 인구수는 1만 5661명에 불과하다.

2022년 말 주민등록 통계 기준 100세 이상 장수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소멸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국가 건축재정 기조 아래 몇 년 전부터 정부 재정 지원이 하향식 배분에서 상향식 공모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기존 공직 시스템으로는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해 군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 영양군 발전의 원동력은 공무원이다.

영양군은 민선 8기 후반기에 제대로 일하는 조직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직 내 29%를 차지하고 있는 6급 공직자들의 중추적 역할 주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오 군수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며 84개 공약 중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신뢰 받는 군정 구현이란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 계획도 마련했다.

오 군수는 "6급 팀장이 예전처럼 단순히 결재만 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열심히 일하지 않는 6급은 승진할 생각도 말라"라는 언급까지 했다.

또 "팀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팀장이 팀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주간 6급 보직팀장들과 무보직 6급 직원을 대상으로 군정발전 관련 1인 1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제출된 군정시책 보고서는 총 155건으로 조직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6급 공직자들이 작성한 만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실행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시책들이 나왔다.

분야별 건수를 보면 △행정·관광(각 37) △복지(18) △농업(14) △도시(15) △경제(10) △보건(10) △교육(7) △환경(5) △교통(2) 순이다.

군은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우수 보고서 제출자에게는 군수 상장을 수여한다.

우수사례는 3월 초에 발표회를 개최하고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전반기는 영양 대변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원동력이 될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2023년부터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와 8~9급 직원 대화(4회) △부군수와 보직팀장 대화(3회) 행사도 실시했다.

이는 군정 역량을 집중해 군민과의 약속을 역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오 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간부회의 보고방식 변경 △직원 기획역량 강화교육도 23년 7월부터는 매월 1회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공약, 현안사업, 지시사항 등을 공유하는 '주요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성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 영양미래 청사진 실행역량 '하나로'

오도창 군수는 군정 화두도 군민과 함께 손잡고 가지는 의미의 '휴수동행(携手同行)'으로 정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공직 내부부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Z세대 공무원들의 톡톡 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최소 10년 이상 근무자로 다양한 공직 경험이 있는 6급 공무원들이 영양군의 과거와 현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역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 지성인 이들이 제시한 다양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정책에 접목하는 것이 군수인 나의 책무라며 "군민들께서 변화하는 영양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발전의 원동력은 군민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조하고 특히 공무원의 역할에 기대하며 민선8기 후반기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권윤동 기자

## 영덕군, 봄맞이 블루로드 숲 가꾸기 활동 펼쳐

### 블루로드에서 정화활동 산행문화 홍보 캠페인

숲사랑지도원 영덕군협의회 회원 20여 명은 우수(雨水)를 맞아 지난 16일 지역의 트레킹 명소인 블루로드 일대에서 산지 정화활동과 올바른 산행문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블루로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숲길을 가꾸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블루로드의 트레킹 코스 중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고불봉에서 송덕사 구간과 강구금진아치교에서 강구대계축구장 구간을 2개 조로 나눠 정화활동을 시행해 쓰레기 200kg을 수거했다.

이날 회원들은 지역의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행을 즐기는 올바른 방법과 문화를 알리고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캠페인도 함께 펼쳐지

역이미지 제고에 기여기도 했다.

숲사랑지도원 영덕군협의회 서기석 회장은 "블루로드를 가꿈에 있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회원들과 즐겁고 보람 있게 행사를 함께 했다"며 "더 많은 분이 청정한 쪽빛 바다와 때 묻지 않은 깊은 숲이 어우러진 블루로드에서 산행을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전국 최고의 트레킹 명소로 손꼽히는 블루로드의 유구한 숲길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군과 민간의 협력이 순조롭게 이뤄져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모범이 되고 있다"며, "자연과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까지 고이 물려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해 블루로드 A코스에 숲가꾸기 사업 등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조여은 기자

## 영해·무인도서 지적관리 활성화 포럼

### 울릉도 독도 및 국토외곽면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지지는 지적박물관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울릉도·독도 및 국토외곽 면적 영해·무인도서 지적관리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열리는 포럼은 제천시, 울릉군, 한국섬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학연구원이 후원한다. 김창규 이날 제천시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 이정민 제천시의회위원장, 홍성인 한국지적학회 회장, 정갑용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상구 박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일본 사대내선의 독도 불법편입에 대응해 독도 및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 등 국토외곽면적의 해양영토 가치 재조명을 통한 해양영토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울릉도·독도 등 국토외곽면적의 영해 및 무인도서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영해 및 무인도서 관리 활성화를 모색해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김윤배 대장의 '울릉도·독도 영해 및 무인도서 관리 현황과 과제', 이범관 관장(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의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지적학적 관리방안',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상구 박사의 '통합측정방식에 의한 독도의 지적 측량', 한국섬진흥원 안기수 박사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토외곽면적 관리 사례 비교' 등 주제발표와 함께 한국지적학회 홍성인 회장, 정갑용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공간제도과 순천호 서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 등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정윤환 기자

#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 영양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잊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으로 오세요

**길**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물**  
맑고 시원한 물이  
영양을 더해주는 이유

**빛**  
햇살이 가득한  
영양을 더해주는 이유

**맛**  
영양을 더해주는  
맛있는 음식

**쉼**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김들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출선, 선바위의 남이모, 삼의계곡, 수려계곡, 분신계곡, 천변공원, 죽백수원, 외백수원길
- 영양의 역사, 을사늑약, 서석지, 두물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박물관, 반도박물관, 영남생태공원, 영남고추장보존사, 영남고추장박물관, 영남공예박물관, 흥감산자연유원지, 안강산수생태휴양림, 분사수사생태휴양림

###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20일 오후 경북도청 동관관에서 열리는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다.



#### 영천시, '엄마도 아이도 건강 ON'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영천시는 임신부 건강교실 '엄마도 아이도 건강 ON'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영천시 임신부 등록자 중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분야 방문 또는 이메일(da2536@korea.kr)로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임신부 건강교실은 오는 27일부터 4월 18일까지 8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천시보건소 출산지원분야(☎054-339-7876)로 하면 된다. 최은하 기자



#### 의성 초·중학교 입학생 필수 예방접종 독려

대상자는 초등학교 입학생 2017년생, 중학교 입학생 2011년 출생자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성 기자

## '영주선비체' 개발 선비 이미지 담다

市 홈페이지 통해 무료 배포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 가능  
선비고장 '영주' 이미지 형상화

영주시가 선비 이미지를 담은 전용서체 '영주선비체' 개발을 완료하고 19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한다.

시의 전용서체 개발은 지난해 배포한 '영주풍기인삼체'에 이어 두 번째다.

영주선비체는 풍요로운 문화유산을 품은 선비의 고장 영주의 도시브랜드와 선비가 가진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한글 2천350자, 라틴 95자, KS심볼 985자로 구성됐다.

선비의 곧은 정신과 기품을 상징하는 것의 형태를 'ㅎ'에 표현하고 도포 자락이 흩날리는 모습을

'ㅅ', 'ㅈ', 'ㅊ'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영주선비체는 시 홈페이지(yeongju.go.kr) '영주의 상징' 카테고리 내 '전용서체' 게시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 문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단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모양을 왜곡·변형할 수 없다.

시는 서체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용서체를 행사용 포스터·현수막, 안내판, SNS 홍보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우리시 대표 정체성인 선비를 형상화한 서체 개발·배포로 '선비도시 영주'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대중적인 서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배포한 '영주풍기인삼체'는 유튜브, 예능 방송 등 영상 자막과 과자 포장지, 도서

표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전상기 기자

## 의성군, 찾아가는 통합 이동 진료 실시

의성 옥산면을 시작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의성군은 지난 16일 옥산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를 운영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취약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2021년 9월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운영 중인 이동진료는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순회하며 치과·이동진료 버스를 이용한 치과 및 한방진료, 치매·정신건강검진 등의 통합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과·한방의사(공중보건), 치과위생사, 간호사 등 10여명의 팀으로 운영한다.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해 마을, 취약시설, 학교 등 생활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 6월에 출범한 경북 유일의 시범사업인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보건의로 대상자에게 △초음파 △X-선 촬영 △심전도 △혈액검사 등 안동의료원 행복병원의 진료와 검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은 작년 3개소에서 올해 5개소 운영 예정으로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찾아가는 통합이동진료 운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맞춤형 통합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봉화국민체육센터, 군민들 위한 체육환경 조성 위해 '구슬땀'

봉화국민체육센터 직원들은 군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명절 휴일에도 근무해 보일러 공사를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화국민체육센터는 그간 LPG 보일러를 운용했으나 도시가스(LNG)가 공급됨에 따라 도시가스(LNG) 전용 보일러로 교체해 보다 효율적인 냉난방공급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번 공사를 통해 교체한 도시가스(LNG) 보일러는 기존의 LPG 보일러와 비교해 40%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스 누출의 우려가 있는 LPG 보일러와 달리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국민체육센터는 자주 이용한다는 A(62.6)씨를 "군민들을 위해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라고 기쁜 심정을 드러냈다. 전상기 기자

#### 고령군, 대기오염 저감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고령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연중으로 상시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1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720여 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에 따라 책정되고,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문이나 환경과 환경정책팀(054-950-6502)으로 문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쾌적

**신청기간** 2. 21.(수) ~ 연 중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읍면, 환경과)

※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배영백 기자

#### 고령군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고령군은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 및 거동불편, 불능환자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상시 운영 중이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만65세 이상 고령군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무료다. 유료대상자의 경우 초진 및 진료시 1600원, 재진시 5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만성 퇴행성관절질환 및 근육통,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통증관리가 필요한 부위에 대해 온열치료 및 경피신경자극치료, 간섭파치료, 적외선 등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배영백 기자

## 고령군의회의는 군민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령을 밝히는 새로운 불빛 | 고령군의의회는 언제나 군민 여러분 곁에서 주민의 대변자와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주시, 해빙기 맞아 감염취약지 집중소독

상주시보건소는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해빙기를 맞아 유행 위생 해충 구제 및 이동식 화장실 등 감염 취약지역에 대해 일제 방역소독을 펼칠 예정이다.

유충구제는 정화조, 하수구, 고인물 등 관내 방역 취약지역별 유충 구제약 살포를 동면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관내 이동식 화장실 160여개에 대해 분무 및 초미립자 살포를 통하여 하절기 위생해충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행기 유충 1마리의 구제는 성충 500여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고, 성충구제에 비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므로, 여름철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켜 감염병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과장은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상주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 경산시, 팀장과 함께하는 2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경산시는 지난 16일 팀장급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6급 팀장들에게 업무 보고의 기회를 부여하고 타 부서 업무 등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간부 양성을 위한 동기 부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8개 부서 팀장이 주요 사업 및 현안업무 보고를 한 후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주요 시정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문화·농업 등 부서별 보배이터를 분석·활용해 경산시민의 생존전략을 강구하고,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읍면동과도 소통을 강화해 상호협업하는 원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신영운 기자

###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탄력

포항시가 시립박물관을 오는 2027년 11월 개관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박물관 건립추진자문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시립박물관 부지 선정 △전문 학예인력 충원 △국립박물관 벤치마킹 등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내실을 다졌다.

포항시립박물관은 국·도비 등 총사업비 460억 원에 달하는 1층, 지상 3층, 연 면적 8240㎡ 규모로 지어진다.

포항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법시민 홍보 △유물기증운동 전개 △건축 설계 공모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포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끌어올릴 시립박물관 건립에 매진할 계획이다. 정형영 기자

# 예천박물관, '대동운부군옥' 목판본 소재 확인

## 프랑스 도서관서 잠자던 보물 가치 재조명과 국보 승격 추진

예천박물관은 조간 권문해가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보물대동운부군옥 목판본이 '콜레주 드 프랑스'에 소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530년 설립된 '콜레주 드 프랑스'는 '콜레주교수단'과 '프랑스 학사원'의 추천을 받아 국가원수가 임명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강의하는 곳이다.

한국에는 지난해 12월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대재 교수가 새로운 공개토대왕비 탁본을 발견하면서 널리 알려진 곳이다.

특히 대동운부군옥 목판본은 1890년 조선주재 프랑스 공사관에서 근무했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조선의 고서 현황을 정리하면서 수집했던 것이다.

그의 저술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eenne)에서 한국 최고의 서적으로 평가한 책이다.

또한 그는 한국의 인쇄술을 극찬하면서 '직지심체요절'을 가장 흥미로운 자료로 꼽았고, '대동운부군옥'은 당대까지 저술된 다른 서적들을 완벽하게 소개한 책으로, 한국 서적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은 참고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예천박물관은 대동운부군옥 목판본이 프



랑스 외에도 일본 황실의 문서나 자료 등을 관리하는 궁내청(宮內省) 서릉부(書陵部)와 일본 국립공문서관인 내각문고(內閣文庫) 등에 소장된 사실도 확인했다.

예천박물관 관계자는 "한말 프랑스 외교관이 주목했고, 일제강점기 조선 3대 천재로 불렸던 최남선이 1913년 재간행을 시도할 만큼 유명세를 지닌 책이지만,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아

쉬움이 있다"며 "올해에는 학술연구 등을 통해 가치를 재조명과 국보 승격을 추진,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 한덕수 총리와 칠곡할매래퍼 '이색 로맨스' 눈길

## "칠곡 누님들 vs 서울 동생님" 한 총리에게 작은 힘을 보태



한덕수 국무총리와 8인조 경북 칠곡군 할매래퍼팀 수니와 칠곡주의 이색 로맨스가 화제다.

지난 16일 서울 청암중고 졸업식을 찾은 한 총리는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가 늦깎이 학생이 된 어르신들을 격려하며 수니와 칠곡주 할머니들이 준비한 축하영상을 시청했다.

한 총리는 영상에 대해 "만학도들의 아이콘으로 널리 알려진 평균 연령 85세의 힙합 그룹 수니와 칠곡주 할머니들께서 졸업과 평생교육기관 무상

급식 확대를 축하하는 합함 뮤직비디오를 보내오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부하니 좋아 죽을 것 같다가도, 눈이 침침 당장 때려치고 싶다가도, 용기 내어 꿈을 향해 달려가자"는 등의 가사로 졸업식장에서 모두가 웃음이 터졌다고 소개했다.

## 명품 울진대게 왕돌초 박달대게 "홀게" 타이부착

### 생산자 단체 품질 보증제 실시

울진군은 2024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앞두고 생산자 단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명품 울진대게에 대하여 타이를 부착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품질보증 제도는 박달대게와 홀게에 대해 "왕돌초 박달대게"와 "왕돌초 홀게"가 인쇄

된 타이를 대게 집게다리에 부착해 다른 대게와 품질을 차별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울진대게 생산자 단체인 죽변대게자망자율관리공동체와 후포대게자망자율관리공동체에서 수협위판 단계부터 엄격한 품질 검증과 관리를 통해 진행되며, 대게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울진대게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먹이생물



이 풍부한 천혜 해양환경 조건을 갖춘 울진 왕돌초 주변해역 200~400미터 수심에서 서식하며 전국의 소비자들이 뽑은 국가브랜드 대상을 7년 연속(2017~2023년도) 수상했다.

## 구미, 축제·콘텐츠 다양화에 주력... 매력 뽐낸다

### 웹툰 제작, 미디어아트 월 조성... 독창적인 지역문화 트렌드 선도



구미시가 다양한 문화정책으로 2024년 매력 가득한 낭만도시로 거듭난다.

독창적인 콘텐츠로 지역 대표 축제 육성, 지역문화 콘텐츠 다양화, 혁신적인 금오산·천생산의 변화 등으로 문화와 관광의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 청춘 금오산 벚꽃 페스티벌, 구미라면 축제, 구미 푸드페스티벌 품점도시로 '우뚝'

매년 봄 청춘 금오산 벚꽃 페스티벌은 올해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포토존, 미디어파사드 프로그램은 확대 운영한다.

벚꽃과 어우러지는 야간 경관 조명을 더해 밤으로 아름다운 축제 공간을 조성한다.

구미라면 축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구미라면 축제는 2024~2025 경북도 우수 지정 축제로 선정돼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축제가 또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확고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 푸드페스티벌 역시 올해 3회째를 맞이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를 전담하는 프레시존 설치로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로 승화시킨 점은 지역 축제의 모범사례로 손꼽을 만하다.

향후 '송정맛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축제 메뉴 개발, 캐릭터 활용, 주변상가 참여방안 모색 등 구미

만의 특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 웹툰 제작과 미디어아트 월(wall) 조성으로 지역문화 트렌드 선도

시는 젊은 세대에 인기가 많은 웹툰 제작과 미디어아트 월(wall) 조성으로 지역문화 콘텐츠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웹툰은 지난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구미 출신 '명장 박복주'를 테마로 한 '오! 복주'라는 웹툰을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해 일주일만에 84만 뷰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라면'을 소재로 웹툰을 제작해 '구미라면축제' 홍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아트 월(wall) 조성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금오산 가는 길에 위치한 구미도시공사 건물에 '기'자 형태의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3D 입체영상을 시현할 예정이다.

### ■ 금오산·천생산 관광의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출발

금오산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시는 금오산 저수지(금오지)에 화려한 불빛과

## 성주군, 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나서...

성주군은 올해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이는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24. 1. 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중소기업 2개월)하도록 하여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기간을 '26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기존 가산금 증가산금의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를 적기에 홍보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재훈 기자

소리를 품은 음악(경관)분수와 형곡전망대의 끊어진 등산로를 이어주는 연결다리의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경관분수는 금오지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체로 운 레이저효과와 활기찬 음악을 점막시켜 이색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성공적인, 손님맞이 위생업소 UP Grade

구미시는 국제체육행사 등을 대비해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노후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대상은 숙박업소 50개소, 일반음식점 200개소다.

숙박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은 객실 도배, 화장실 개·보수비용의 50%를,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사업은 화장실 개·보수, 대·소변기 등 수리·교체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일반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보급 사업과 임신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도 추진해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진 기자



# 근대골목 쓰담투어 (플로킹)

**코스**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1~5코스

**투어운영**

- 정기투어 : 매주 수요일 15:00 / 매주 토요일 10:30
- 수시투어 : 7명 이상 신청 시, 시간·코스 자율 운영
- 투어인원 : 7명~13명 정도 1팀 운영

※ 1365자원보상포털(<https://www.1365.go.kr/vols/main.do>)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자원봉사등록 및 실적확인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 대구중구청 골목투어 홈페이지 (<https://www.jung.daegu.kr/new/culture/pages/main/>)
- 전화신청 : 대구중구청 관광과(☎053-661-2625)



※ 플로킹(Ploking)이란 : 스웨덴어 'Ploka upp(줍다)'와 영어 'Walking(걷기)'를 합성한 신조어